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개미들, 자신의 돈을 올린하는 사람들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그저 집값이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민족인가.”

우리 한국은 집에 관한 아이덴티티가 약한 나라이다. 한국에서의 집은 집이 아니라 돈의 전령처럼 돼버린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궤도를 달리하며 서로 하향곡선과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상식인데도 지금 우리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똑같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집은 투기의 대상일 뿐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 아니다. 집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다. 아파트투기로 흥한 사람들이 아파트투기로 망하거나, 계속 아파트투기에 나 목숨 걸다가 무덤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개미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 된다.

개미는 자신이 살던 집이 무너지면 자살하는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처연하다. 자신이 살던 집이 무너졌을 때 슬픔에 잠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는 대목에 이르면 집이 무엇인가를 새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처연함의 근거는 뚜렷하다. 집이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숨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 역시 집이므로 집은 달리 말해 한 인간의 일생을 지켜보는 목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집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개미들은 집이 무너지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남은 생을 포기하고 숨을 끊는 것. 그것은 곧 집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반증한다. 개미에게 집은 곧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그저 집값이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민족인가. 그렇지 않다. 20년 전, 셀러리맨들은 10년 혹은 15년쯤 열심히 저축하면 일부 용자를 받아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7년쯤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의 희망을 이룰 수 있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의 연봉이 400만 원 안팎이었고, 32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3,000만 원 안팎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회사원들의 꿈이 살아 있는 사회였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도 없는 소리다. 부모 잘 만나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셀러리맨이 살아 생전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집이 무너지면 목숨을 던지고 싶지만 무너지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죽은 사회이고,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회이고, 율화통만 터지는 사회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한 권을 만나 봐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세욱 번역, 열린책들)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예를 들어 도시의 구역 배치에 대해 흥미로운 논리를 전개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부자들은 서쪽에 자리 잡고, 빈민들은 동쪽에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서방향의 거주 형태가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파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부자 지역의 쓰레기 오염물질 등을 동쪽으로 밀어낸다. 파리에서는 대기환경 등이 거주조건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지역은 부자들이 외곽 지역에 살고, 빈민들이 도심에 산다. 이런 배치구도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게 베르베르의 진단이다. 반대로, 도심의 폭동세력을 진압하기 쉽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런 진단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강남 집값은 웃긴다. 한강이 강남북 사이를 흐르고 있으니 강남북의 거주 조건은 비슷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기에게〉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지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최근 소설집 《별》을 냈다.

한데 북한산 도봉산 등의 명산은 오히려 강북에 있다. 주거환경으로 치면 강북이 우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도망치기 쉬운 것으로 치면 서울 도심 중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외곽 모두가 부자들의 구역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도 아이덴티티가 없는 집값의 모순은 드러난다. 그러므로 강남 부동산 값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미쳤다'고 탄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갓난아이의 죽음보다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갓난아이는 세상살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럽에서는 다르다. 그들은 갓난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살 만큼 산 사람의 죽음이라고 여겨 크게 슬퍼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방향만 다를 뿐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상은 사람이 움직여 간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그러므로 이 땅은 사람들의 공동소유라는 뜻이 된다.

집값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문제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욕구를 잠재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돈이 흐르는 법 아닌가.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02년에 서울 기준으로 96퍼센트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100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무능력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정책의 실패인 탓이다.

실패의 요인은 분명하다. 증권투자가 이익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진 데 비해 부동산 시장은 편법과 불법의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 있다. 불로소득을 막아야 할 법이 불로소득의 마당 역할을 하는 셈이고 법이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간과하고 부동산에 뛰어드는 사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집을 마련할 수 없으며, 그럼으로써 집이 무너질 때 추억을 반추할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다. 서글픈 일이다. 우리는 재미만도 못한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개미는 자신이 살던 집이 무너지면 자살한다. 반면에, 한국사회의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질 수조차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 사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투기 목적으로 올인하는 우리 이웃인데 개미가 들으면 허리를 잡고 웃을 일이다. **주포지니**

